

농어촌공사 아산지사, 취약계층에 추석 명절나기 지원

[이신학]



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될 온누리상품권을 지난 22일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고 있다. /아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명절나기를 지원하며 온정을 나눴다.

아산지사는 지난 22일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될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'행복한 농어촌, 함께하는 KRC'라는 비전 아래 농업생산기반 정비, 농촌용수 관리 등 본연의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아산지사는 이러한 비전에 따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.

심길웅 지사장은 "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"고 말했다.